

# “신림역 칼부림, 일본 님은꼴... ‘나만 불쌍’ 왜곡된 분노가 원인”

일본 저명 범죄심리학자 기류·고미야 교수 인터뷰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흥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른바 ‘문지마 칼부림’은 일본을 떠올리게 한다.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경제침체를 겪은 일본에선 2000년대 들어 20, 30대 남성에게 의한 무차별 살상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2008년 2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도쿄 아카하바라 상점가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흥기를 휘둘러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아카하바라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1년 아케다 초등학교 사건(8명 사망·15명 부상), 2016년 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 사건(19명 사망·26명 부상) 등도 피해 규모가 컸다. 2021년 도쿄 전철 안에서 칼부림과 방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도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에는 일본의 저명한 범죄심리학자 2명에게 한국의 이번 사건이 일본과 유사한지, 그렇다면 원인과 근본 방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기류 마사유키(왼쪽 사진) 도쿄대 교수와 고미야 노부오(오른쪽) 릿쇼대 교수가 4일과 5일 각각 전화와 화상 인터뷰에 응했다. 기류 교수는 일본 과학수사연구소 소속 프로그래머로 20년간 근무했다. 고미야 교수는 유엔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 등을 거쳤다.

이들은 “신림역 사건은 일본의 무차별 살상 범죄와 매우 유사하다”며 스캔들이 많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역 주변을 범행 장소로 삼았고 스캔들이 사회적 콤플렉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공통점으로 꼽았다. 이어 “두 사건을 시작으로 유사 범죄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과거 사건들을 자세히 연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법무성이 2000~2010년 무차별 살상 사건으로 수감된 52명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9세 이하가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며, 80%가 무직이었다.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병력자는 거의 없었다. 학력은 중졸(63%)이 다수였다.



일 장기 경제침체, 문지마 범죄 기승 무차별 살상범 52명 분석해 보니 무직의 39세 이하 남성이 대부분

신림역 가해자 ‘키가 작아 열등감’ ‘나보다 키 큰 남자’ 행복 상징 선택 그것을 봉기시키는 행동으로 표출

경비 강화는 범죄 예방 한계 뚜렷 고립된 청년들 직업 교육 강화 등 사회적 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

이들은 범행 동기로 실직, 실연 등을 꼽았지만, 기류 교수는 “그런 이유는 어디까지나 범행을 현실로 옮기는 계기가 된 ‘아쉬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존심은 강한데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데 불만을 품

고 ‘내 존재를 드러내 증명하고 싶다’는 것이 무차별 살상범들의 공통적인 내적 동기”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은 범행 후 언론이 자신을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고 한다. 고미야 교수는 ‘세상이 나한테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사회경제적으로 뒤쳐진 남성들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가 좌절감을 부추기고, ‘세상이 불평등한 건 사회와 타인들 때문’이라고 탓하는 온라인 공간의 문화가 비틀어진 분노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고미야 교수는 “빈곤과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 “나만 그런 어려움을 부담하게 겪는다는 불만이 무차별 살상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왜곡된 인식은 ‘나는 못 누리는 행복의 상징’을 찾아 봉기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고미야 교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풍을 하는 주말의 아카하바라도 행복의 상징으로 선택된 것”이라며 “2021년 헬러윈 때 조커 복장을 하고 도쿄 게이오선 전철에 탑승해 흥기 난동을 벌인 가해자도 헬러윈을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을 노렸다”고 말했다.

다. 그는 “남성들만 골라 흥기를 휘둘른 신림역 가해자도 ‘나보다 키가 큰 남자들’을 행복의 상징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키가 163cm로 알려진 신림역 가해자는 “키가 작아 열등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기류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일어난 무차별 살상 범죄를 자세히 연구하고 유사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을 특정해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에선 초기에 지하철역 인근 등이 타깃이 됐다가 해당 지역의 경비가 강화되자 초등학교, 쇼핑몰, 전철 안 등 더 취약한 곳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사건(2019년)과 오사카 기타신치 빌딩 방화사건(2021년) 등의 경우처럼 경비가 허술한 건물에 불을 질러 수십 명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진화한 것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지역 순찰대를 꾸리는 것도 당장의 치안 대책으로 꼽혔다. 이성을 잃은 가해자들은 방범카메라는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 순찰대 앞에선 주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류 교수는 일본에서 2002년 고령층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지역

방법패트럴 제도’가 도입된 후 무차별 살상 범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 무차별 살상 범행에 대비해 출퇴근하는 길이나 자주 가는 장소의 대피 경로를 미리 잘 알아두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기류 교수와 고미야 교수는 경비 강화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의 토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한 달 수입이 0원(31명)인 사람이 가장 많았고, 10만 엔(92만 원) 이하가 9명, 20만 엔 이하가 8명이었다.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1명도 없었고, 교제 상대가 있는 사람은 3명뿐이었다.

고미야 교수는 “빈곤하고 고립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등 재정 지원을 하거나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류 교수는 좌절된 청년들을 위한 접근성 좋은 상담 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정부 기구인 ‘고독·고립 문제 대책실’을 설치해 일정부 부분 효과를 봤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 걸으면서 두리번, 기자 접근하자 흥칫... 서현역 공포 여전

6일 낮 12시 30분, 흥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 상가. 사건 발생 후 사흘이 지나 첫 주말을 맞았지만 거리는 썰렁했다. 중고생과 대학생 등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활기 넘쳤던 평소 주말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온 시민들도 뭔가에 쫓기는 듯 빠른 걸음으로 역안으로 사라졌다.

분당 최대 상권 서현역이 공포심에서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다. 걸으면서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인터뷰를 위해 기자가 접근하자 흥칫 놀라는 이들도 적잖았다. 문을 열 시간이 지났는데 출입문을 굳게 닫은 점포도 보였다.

화장품 가게에 근무하는 김모(20대)씨는 “코로나19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얼마 전 사고 여파가 큰 것 같

다”고 했다. 또 다른 상인은 “서현역은 하루 평균 18만 명이 다녀가는 곳인데 분당 최대 상권이라는 명성이 무색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친구와 함께 서현역을 찾은 이민지(23)씨는 “신림동 사건 때는 나와 무관한 곳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서현역은 친구들과 주 2, 3회 오는 곳이다 보니 소름 돋는다”며 “오늘은 예약한 물건만 찾고 바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함께 온 친구도 “당분간 서현역에 오지 않을 것 같다”고 걸음을 재촉했다.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 안도 인적이 드문 건 마찬가지였다. 음악과 이용객

들 소음으로 옆 사람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던 중앙홀은 적막하기까지 했다. 그나마 경찰 등의 순찰 활동이 대폭 강화된 점이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움이 되는 듯했다.

1층 중앙홀에는 경찰특공대 2명과 분당경찰서 경찰관 2명이 양쪽 출입문을 오가며 순찰을 돌았다. AK 측이 따로 고용한 보안요원 2, 3명도 출입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현역과 수원역, 에버랜드 등 각 3개소에 경찰특공대를 4명씩 총 12명 배치했다. 수원역과 서현역엔 장갑차까지 등장했다. 딸과 함께 왔다는 30대 여성은 “친척집 가는 길인데 백화점인데도 으스스스럽고 무섭다”면서도 “경찰이 지키고 있으니 그나마 안심 이 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탄전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붕괴와 수내역 에스컬레



장갑차 배치된 강남역 ‘문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흥기 난동이 예고된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가 전술 장갑차를 동원해 순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터 역주행 사고 등 최근 잇따라 악재가 발생하는 것에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앙홀 벤처에서 만난 김명인(68)씨는 “신도시 조성 때 이사 왔

는데 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며 “그런데 분당이 어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1기 신도시가 지어지고 30년이

됐으니 도시도 사람도 조금씩 망가지는 것 같다”면서도 “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 NEXT LEVEL SPORTS

##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

### 스포츠 경험의 넥스트 레벨!

VR, AR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올림픽 종목인 클라이밍,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입니다.

사전 홈페이지 예약

(http://nextlevel.sports.or.kr)



인스타 사진 둘러보기

(https://www.instagram.com/sportsforall2023/)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스타  
바로가기